

# 계룡시 공무원노조, “인사전횡 농락하는 계룡시장 규탄”



▲충남 계룡시 공무원노조가 무원칙 인사 전횡으로 직원들을 농락했다며 계룡시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충남 계룡시 공무원노조가 지난 3일 계룡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무원칙 인사 전횡으로 직원들을 농락했다며 계룡시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계룡시지부는 “세간에 떠도는 시장의 최측근 초고속 무원칙 인사를 바로잡아 보고자 끝까지 몸부림을 쳐보았지만, 그들만의 잔치로 보는 인사가 이뤄졌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등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시장은 임원진과 면담을 통해 모든 인사로 인한 행정적 책임은 자신(시장)이 지겠다고 호언장담 해놓고 최측근 인사 부당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물거품이 되어버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룡시의 밀실 인사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부당 인사와 관련해 “직원들이 농락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부장과 임원의 사발로 결의를 다질 것”이라며 “앞으로 계룡시 인사가 모두가 인정하도록 상식과 공정이 통용되는 날이 올 때까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CTN 가금현 대표이사, 대한적십자사 표창장 수상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 참여 인정받아



CTN(주) 신문사 가금현 대표이사가 지난 22일 대한적십자사 충청남도지사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날 가 대표는 서산시 동문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실에서 박주명 동장을 비롯한 각 팀장과 직원, 가선숙 동문2동 통장협의회장, 유유클럽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상을 수상했다.

가금현 대표이사는 현재 서산시

동문 44동장으로 활동하며 인간의 고난경감과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 조성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국제로타리 3620지구 한서로타리 클럽 회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와 세계사회에 참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봉사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인증시간이 현재 8700여 시간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2년 근로기준법 어떻게 바뀌나?

2022년 상반기에 거쳐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된다.

이번 개정되는 제도 중 대지급금 제도 개편, 직장 내 괴롭힘 범위 확장,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허용,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등으로 근로자에게 밀접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

###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정 대지급금)으로 변경된다.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등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급여다.

▲개편된 내용 △지급대상 확대: 퇴직자만 대지급금 신청 가능 → 재직 중 임금 체불에도 신청 가능 △지급절차 간소화 체불조사 및 자체 청산 제도 (50일) → 지급 (14일) △사업자 과태료 상한액: 500만 원 → 1,000만 원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이 강화된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화된 과태료 규정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시행: 300만 원 △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200만 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함: 300만 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200만 원.

### ■임신 근로자 업무시간 변경 허용

앞으로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다.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신청 절차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 (진단서는 최초 1회만) △신청서에 임신 기간, 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재함.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앞으로 모든 근로자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고용 형태 상관없이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별 부과가 아닌, 위반 근로자 1인당 500만 원이다.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 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급,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실수령액

###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이제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중단 및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비원과 같은 일반 근로자들까지 적용 대상자 확대되며, 고객 응대 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의 폭언에도 적용된다.

▲요구 가능한 사항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하며,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란 근로자 등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공휴일 연차대체제는 상호 합의가 있더라도 불법이다.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유급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주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이며,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 물게 된다.

###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 임금 또는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2022년부터 아르바이트, 직원 상관 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 ■2022년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을 포함해 총 118일이다

▲공휴일 △매주 일요일 △1월 1일 (신정) △1월 31일~2일 (설 연휴) △3월 1일 (삼일절)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 및 관공서 근로자 제외)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석가탄신일) △6월 1일 (지방선거일) △6월 6일 (현충일) △8월 15일 (광복절) △9월 9일~11일 (추석 연휴) △9월 12일 (대체공휴일)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0월 10일 (대체공휴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가금현 기자

## 태안군, 문광부 주관 ‘코리아둘레길’ 선정

문광부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공모



▲코리아둘레길에 포함된 태안군 솔향기길

〈제공=태안군〉

태안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공모에 선정돼 국비 66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날 공모사업은 코리아둘레길 전체 노선 개통에 대비해 걷기 여행객들의 이용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서해랑길(태안)에서 만나는 마라톤’이라는 주제로 지난해 공모를 신청한 바 있다.

우리나라 외국의 기존 길을 연결해 조성한 ‘코리아둘레길’은 총 4544km에 이르는 국내 최장 걷기 여행길로, △비무장지대의 DMZ 평화의길 △서해의 서해랑길 △동해의 해파랑길 △남해의 남파랑길로 이뤄져 있다.

서해랑길의 경우 전남 해남부터 인천까지 총 1800km 109개 코스로, 태안군에서는 남면 당암리에서 서산시 팔봉면 호리 구도항에 이르는

189km 11개 코스가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특히, 태안지역에서는 지난 2007년 기름유출 피해 당시 방재길로 쓰였던 솔향기길이 코스에 포함돼 태안이 지닌 희망의 스토리를 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탁 트인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태배길, 해변길 등도 포함돼 관심을 모은다.

군은 올해 말까지 해당 코스에 관광 안내소 및 물품 보관소 역할을 겸하는 쉼터 시설을 조성하고 예술가 및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하는 걷기여행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최고의 힐링 여행지로 각광받는 태안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코리아둘레길과 연계하고 여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철 기자

##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천안지회 강현수, 충남교육감상 수상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천안지회 강현수사무국장(CTN천안취재본부 부장)은 지난 12월 27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정기총회에 참석해 충청남도 교육감상을 수상했다.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정기총회에서는 각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장 및 도와 시군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 유공?공로자 격려, 임원선출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천안지회는 등교시간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청소년 근로권익활동, 청소년유

해환경모니터링, 청소년 감시순찰 활동, 합동캠페인 등을 펼치는 단체로,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1년 한해동안 꾸준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에 교육감상을 수상한 강현수 사무국장은 “천안이 충남에서 청소년이 가장 많은 도시인데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순찰 및 캠페인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 ‘청소년이 안전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한국청소년 보 호연맹 천안지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 홍성군, 2022년 출생아부터 첫만남 이용권·영아수당 지급

홍성군은 생애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출생아부터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와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지난 3일 군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 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와 30만 원의 가정양육 영아수당 혹은 50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한다.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유학업소·사행업소 등을 제외하고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후 자동으로 소멸된다.

‘첫만남 이용권’의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와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오는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만0~1세(생후 23개월까지) 가정양육 시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과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 이용 시 매월 50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되며 다만 24개월부터는 기존 아동이 지원받던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로 전환된다.

영아수당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이밖에 군은 현재 출생순위에 따라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400만 원, 셋째아 600만 원, 넷째아 1,0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축하금 제도를 2022년에도 병행 시행할 계획이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바란다”며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홍성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진 기자